

❖ 1월의 전례 - 주님 세례 축일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축일을 통해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상기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성사는 2000년 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어 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회개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함이며, 우리가 세례로 얻게 될 '죄(마귀)에서의 승리'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수께서 받으신 세례는 세례의 완성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6-17)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축일이다. 이 축일은 1969년 전례력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님 공현 대축일 후 8일째 날에 지냈으나, 개정 후에는 주님 공현 대축일 다음 첫 주일에 지낸다. 주님 세례 축일로 성탄 시기는 끝나고, 다음날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된다.

주님 세례 축일은 우리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성탄절에 세례를 주던 풍습과도 관련이 있다. 처음 동방교회에서는 주님 공현 대축일을 지내면서 이미 주님의 세례를 기념, 전날 저녁 물을 축복하는 예식을 가졌다. 이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샘을 만들고자 물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는 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사명을 시작하는 공생활의 선포일이기도 하다.

주님의 세례는 하느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춰 강물 속으로 잠기는 모습을 통해 죄로 물든 인간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죄의 짐을 지고 속죄와 고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간과의 연대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세례성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세례성사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시작일 뿐, 목적도 완성도 아니다. 세례성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우리가 그분을 향한 자유와 해방으로 초대되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결국 완전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며 세례 때 받았던 성령을 통해 구세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며, 그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를 것을 다짐해야 한다. 신앙인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 성화하고, 평생토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 복음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가톨릭신문]



❖ 영적 독서: (요한 2,1-11)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그때에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앙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묵상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기적 행위를 통해 당신께서 누구신가를 증명하며,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때마침 예수님과 그 일행이 참석한 혼인잔치에는 불행하게도 여흥을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과 사람들의 원의에 부응하여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혼인잔치를 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사건을 바라보는 요한복음사가는 우리들이 알아듣기 쉬운 의미로서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징'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리키는 요한복음 특유의 용어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과 그를 파견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야기됨을 뜻합니다

(200 주년신약성서주석). 기적은 그 사건을 통해 메시지를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지만, '표징'은 그 사건을 보는 이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 의미를 확대 재생산하게 하며, 확고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 행위는 단순히 당신의 능력과 힘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을 믿기 위한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를 숙고하게 만듭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은 이를 목격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제자들은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요한 2, 11) 됩니다. 이러한 '표징'은 분명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와 영광을 보여주지만, 그 신비를 참되게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사람들에게만 그 의미가 확연하게 보여 질 것입니다.

한 순간의 경이로운 기적으로 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이면에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기적체험의 효과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표징'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수용할 때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이들보다는 철부지들에게 보여진다'(루카 10, 21)는 말씀처럼 예수님 삶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참다운 진리가 체험될 것입니다. 그러한 수용성을 통해 우리는 인간과 일치하고자 자신을 포기하는 하느님의 내밀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원교구 나눔의 소공동체지 2013년 1월호]

- ❖ 성체조배
- ❖ 시작성가 (회의실)
- ❖ 시작기도 (길잡이 14 쪽)
- ❖ 새로 오신 분 / 특별 참석자 소개 및 환영
- ❖ 행사토의 / 각 부서 공지사항

- 임원소개: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울뜨레아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정상준(미카엘) / **부간사:** 노상현(미카엘라) / **총무:**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 **교육부장:** 최광섭(요한) / **교육차장:**  
 기현철(베네딕도) / **음악:** 최상진(엘리사벳) / **빨랑카부:**  
 기강은(크리스티나), 채지연(마리아) / **활동부장:** 고응봉(안드레아) /  
**섭외부:** 홍인숙(루시아)

새 임원진:  
**간사:** 박종태(프란치스코사베리오) / **부간사:** 고응봉(안드레아),  
 정휘식(루시아) / **총무:** 이호원(스테파노) / **교육부:** 김경(폴리나) / **음악:**  
 최상진(엘리사벳) / **빨랑카부:** 박정연(데레사) / **웹관리부:** 최광섭(요한),  
 이희초(비비아나) / **섭외부:** 홍인숙(루시아)

- 연간 계획 안내 및 토의 - (첨부) 2013년 울뜨레아 행사계획
- 길잡이학교- 2013년 길잡이 학교 3기 교육일정 및 소개, 모집
- 팀회합 현황 및 나눔의 시간
- 울뜨레아 활성화 방안 토의 및 건의

- ❖ 영적지도: 지도신부님
- ❖ 아침기도 (길잡이 15 쪽)
- ❖ 아침성가
- ❖ 친교시간

**2013년 울뜨레아 행사계획**

| 날짜           | 내용                          |
|--------------|-----------------------------|
| 1/17 (목)     | 월례모임                        |
| 2/14 (목)     | 월례모임                        |
| 3/14 (목)     | 월례모임                        |
| 4/11 (목)     | 월례모임                        |
| 4/27 (토)     | <i>Walk-A-Thon</i>          |
| 5/9 (목)      | 월례모임                        |
| 6/13 (목)     | 월례모임                        |
| 6/22 (토)     | <i>Walk-A-Thon</i>          |
| 7/11 (목)     | 월례모임                        |
| 8/15-18(목-일) |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 행사(주말피정 및 재교육) |
| 9/15 (일)     | 꾸르실리스따 가족 야유회               |
| 10/5 (토)     | <i>Walk-A-Thon</i>          |
| 10/12 (토)    | 북가주 전체 울뜨레아 (샌프란시스코 본당 개최)  |
| 11/16 (토)    | 울뜨레아 송년 모임                  |